

전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 출범식

2003년 5월 31일 오후 2시 백양로 3거리

축사
과 여학생부장 및 여성소모임의 얘기
연설 1
연설 2
전국 대학 총여학생회장 발언
9기 전여대협 의장 발언 및 출범선언문 낭독

전여대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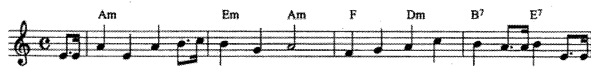
전여대협은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준말로 전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전여대협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로 나서는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제도를 반대하고, 여성의 자주적인 힘으로 양성평등 여성해방이 된 세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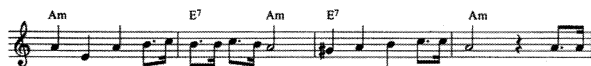
함께 불러봐요 ~ ^ ____ ^

전여대협 진군가

신나고 우렁차며 위엄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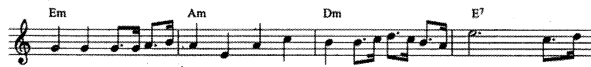
일어 서 라 해 방의 전 사 여 내 조 국 의 부 름 이 다 전 여



대 협 깃 받 을 높 이 올 리 라 아. 진 군 이 다 자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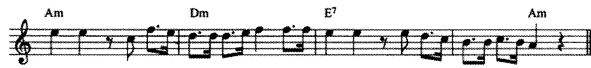
스 런 조 국 의 말 그 대 항 일 여 성 전 상 의 후 예 여



반 미 반 독 재 의 성 천 에 서 선 봉 예 우 뜻 서 리 라 당 당



한 세 상 의 전 반 으 로 조 국 의 역 사 를 개 혁 하 리 라 전 여



대 협 깃 받 을 높 이 올 리 라 자 주 민 주 통 일 의 세 상 을 열 자

전여대협 反성폭력 문화제

넘다!

5월 30일 6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



5월 31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양로 3거리

전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 출범식

넘다!

<문화제 봉행사>

◆서막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 영상 : (그동안의 반성폭력 운동을 담은 영상)
-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왔던 학우들의 발언 및 율동

◆2부 :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 영상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극 공연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소리공연
- 발언 및 퍼포먼스 : 교수 성폭력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 살풀이

▶3부 :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인터뷰 영상
- 시와 극이 어우러져 만드는 희망
- 퍼포먼스
- 우리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리라
- <희망은 있다> & 반성폭력 조형물 만들기

<참여 마당>

◆부대행사

- 페이스페인팅
- 각 대학 총여학생회 기념품 모음 판매
- 반성폭력 선언운동 & 버튼 판매

◆기획거리

- 반성폭력 조형물 & 만평
- 반성폭력 성황당 만들기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등 각종 기획물

1회 한국대학생 학술제전 - 2003년 5월 31일 11시

『전쟁과 여성인권』

강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5월 한국대학생 영화제 - 2003년 5월 31일

『거북이 시스터즈』

장애여성 공감, 여성영상집단 움 제작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공개한 세 명의 1급 장애 여성들의 역동적인 인생살이를 담은 다큐멘터리

희망은 있다

윤미진글,곡

“反성폭력 생존의 땅에 도착하다!”

“생존의 땅에서...”

“생존의 땅에서 말하다”

너가

1부 프롤로그

사건이 아닌 사람, 사건이 아닌 생존자의 경험, 생존자의 진술로 성폭력을 바라보자.

2부 “내 주위의 풍경” - 일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나의 몸은 변했다.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일상적인 성폭력

교수 성폭력

3부

전쟁

4부 “약한 피해자에서 능동적 생존자로!”

피해 여성의 피해 극복과 성폭력 경험의 의미 재구성

5부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反성폭력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들!

<<반성폭력 문화제 기획안(초안)>>

0부

사건이 아닌 사람, 사건이 아닌 생존자의 경험, 생존자의 진솔로 성폭력을 바라보자!

1부 지금까지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본다

주제 : 지금까지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본다

내용 :

- 1.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의 과정
- 2. 학내 반성폭력 운동
 -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 자치 규약 운동
 -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

피해자의 노래 만들기

비폭력에 대한 인식 등
유언
노래 만들기를 할 수 있는

2부 지금 우리의 주변은, 지금 우리들은

주제 :

내용 :

- 1.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일상적인 성폭력
- 2. 일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 3. 교수 성폭력이 점차 드러나는데 가해자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한층 강화되고
- 4. 지금 우리의 모습은
 - 생활문화 운동으로서 반성폭력 운동
 - >수련회 모꼬지 성폭력 등

3부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주제 : 피해자에서 능동적 생존자로, 반성폭력 운동의 나아갈 방향 제시

내용

- 1.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 2.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제기
- 3. 능동적 생존자로서
-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꺼리

- 1. 반성폭력 운동 흐름을 학내에서 어떻게 짜고 진행하고 있는지?
- 2. 반성폭력 문화제 판에 대해
 - 반성폭력 운동의 현황
 - 반성폭력 운동을 하며 드는 고민
 - 반성폭력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 3. 반성폭력 문화제 준비 흐름
 -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하여 문화제에 참여할 것인가?

제1회 반(反)성폭력 문화제 준비 계획 - 1탄

수신 : 각 급 단위 학생회 및 문화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
 발신 :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준)

1. 반성폭력 문화제의 의의와 목표

- 1) 여학우들의 삶을 일상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주기 위한 반성폭력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 2) 특히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보고, 더욱 대중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단계 끌어올린다.
- 3) 각 대학별로 반성폭력 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크게 표출한다.
- 4) 단순히 1회성 행사를 넘어, 계속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문화적 통로를 열어내는 과정으로 문화제를 성사한다.

2. 반성폭력 문화제 일시 및 장소

- 일시 : 5월 31일(가), 4월말까지 일시 확정
- 장소 : 서울(가), 5월초까지 장소 확정

3. 핵심 기조

대학 내 성폭력(특히 교수 성폭력과 가해자 역고소), 전쟁 성폭력
 성폭력 생존자들의 몸부림
 반성폭력 운동의 돌파구

4. 문화제의 대략적인 상

- 기본적으로는 문화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학에서 만들어낸다.
- 문화제 본판과 마당사업(가칭)을 통해 핵심기조의 내용을 풀어낸다.
- 성폭력의 현실, 반성폭력 운동의 현재를 바라보고 반성폭력 운동의 돌파구를 문화적 표출을 통해 찾는 자리이다.
- 과, 단대 여학생회/학생회가 최대한으로 발동되어, 자기의 반성폭력 운동을 표현하는 자리로 만든다.

5. 준비주체

① 전여대협의 모든 단위가 기층까지 최대한 발동되어 준비한다.

과여학생회(부)-단대여학생회(부)-총여학생회/총학생회 여학생부-지역여대협-전여대협 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최대한 발동하여 준비한다.

② 기획단 모집 및 구성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주체가 기획단 구성원이 되어, 각 대학별 반성폭력 운동과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주체가 된다.

1) 기획단의 활동상

- ①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흐름을 계획하고 담당한다. 특히 기획단 및 기획단 내 국별 회의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폭력 운동의 전망에 대한 토론을 심화시킨다.
- ②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흐름 속에서 반성폭력 문화제 전반에 대해 기획한다.
- ③ 문화제의 구체적인 집행은, 각 주체가 담당하되 대학의 체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회의를 가져간다.
 - 기획단을 국별로 나누고, 국별 회의를 통해 계획의 초안을 제출한다. 각 국별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을 전체 기획단 회의에서

풍부화 및 결정하고, 각 국별로 국별 사업을 집행, 점검한다.

- ⑤ 문화제를 앞두고는 마지막 점검 주체가 되어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획단 대상자

- ① 기본적으로는 각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
- ② 그 외 반성폭력 문화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3) 기획단 체계

각 국의 주체는 전여대협 간부가 맡되, 기획단 구성원이 각 국을 구성한다.

각 국에서 기본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체 기획단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① 여론사업 및 홍보국 :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식과 여론을 담당하며, 문화제를 실질적으로 알리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한다.
- ② 기획국 : 문화제를 1차적으로 기획한다.
- ③ 사무 및 조직국 : 재정원을 확보하고, 문화제 조직화 계획을 담당한다.

6. 문화제 준비 흐름

	기획단	각 대학 반성폭력 운동	문화제 준비
4월 중순까지	1차 회의 - 기획단 구성 및 역할 분담		문화제 주제 및 핵심기조, 상 정리
4월 말까지	- 각 국별 회의 및 전체 회의를 유동적으로 가져간다. <논의내용> - 반성폭력 교양 및 학습 - 문화제 전체 세부 계획 (국별)	5월 반성폭력 운동 계획 논의 및 확정	문화제 명칭, 날짜 확정, 기본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의식화계획, 재정 계획, 조직화 계획 등 문화제 전반 구체적 준비계획 확정
5월 초까지	- 국별 온라인 회의 - 기획단 전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 (기획단 내에서 조정)	본격적인 반성폭력 사업 시작 - 특히 학우 여론사업 및 조직화 사업 - 5월 중순에 있을 각 대학 반성폭력 사업 준비	재정원 확보, 섭외 확정, 구체적인 프로그램 정리, 장소 확정
5월 중순까지		각 대학 반성폭력 대중사업 전체적이고 일관된 반성폭력 실천 사업	섭외 2차 확정, 포스터 및 온라인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각종 홍보
5월 말까지			마당사업 최종 점검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조명

성폭력을 어떻게 근절해나갈 것인가?

->다각도로 고민해보아야한다.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와 더불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몇 가지 쟁점별로 형성된 성폭력에 대해 돌아보기

-> 전쟁 시 성폭력

-> 교수 성폭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만들어져온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식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한다.

그 중 피해자 치유 과정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우리 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학습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어떤 내용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

-> 그 동안 반성폭력 운동 진행 과정에 대해

-> 그 동안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한계적인 측면

-> 지금 반성폭력 운동은 어떤 국면에 있는가?

=== 자료는 섹슈얼리티 강의와 여러 여성운동 단위에서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기본 논의가 되어야겠다.

기획단의 활동상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해줄 필요가 있겠다.

※ 문화제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강연회 등을 기획해보는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전쟁과 여성인권에 대한 강연회와 더불어 함께 조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총련 출범식과 맞물려 흐름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보아야겠다.

기획단의 상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문화제 의의와 목표에서 3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 상반기 사업과 투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모아낸다면 반성폭력 문화제의 내용과 어떻게 결합을 시켜야할 것인지 고민이 되네요!

-> 문화제를 반성폭력 운동 흐름과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맞겠는지 아예 반성폭력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져가는 게 맞을지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뭐냐면..

학칙에 대한 건데 말야.

교수 성폭력을 얘기하다보면 사실상 학칙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전여대협에서도 올해 학칙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한거고..

핵심적인 방향이 될 순 없지만,

무언가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학칙 토론회를 하기에는,

대학별로 고민의 진척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기획단 모였을 때 상황을 총화해보고 가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한번 고민해보자구~

일단 몇가지 보충해놨어.

토론회나 강연회는 고민안해본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대신 마당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

'마당사업'이라는 명칭은 이후에 바꾸는 것으로 하고 말야.

전쟁과 여성인권 강연이랑은...글쎄... 이후에 더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가 굳이 지금 결론은 안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기획단 상이 뭐가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지?

원래 적어놓은 것에 약간의 설명만 붙여넣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주면 좋겠네.

또 '문화제를 반성폭력 운동 흐름과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맞겠는지 아예 반성폭력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져가는 게 맞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여하튼 별로 고민 건 없지만, 부분부분 조금 보충된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꼭 봐.

그리고 학습은 일단 문서를 만들어 자료실에 올려보도록 하지.

최대한 읽고 오는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정 안되면 어쩔 수 없고

한가지 고민은,

여론홍보국은 내가 말하면 되는데,

기획국과 사무조직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된다.

기획국을 너에게 맡길 생각이었는데, 사무조직국을 대학 일꾼한테 맡길 순 없으니.

그렇다고 사무조직국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말야.

의견이 있으면 다음.

기획단이 준비해야할 것은 다시 좀 정리해서,

안건이랑 같이

홈피에 올리고, 메일링리스트로 보내도록 하지.

반성폭력 문화제 준비계획 - 3탄!

1.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폭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 술자리, 모꼬지, 강의실, 교정... 그 어느 곳에서도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는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그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부터, 성폭력을 둘러싼 수많은 왜곡된 시선과 온몸으로 싸워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소외되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서가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투쟁, 개정투쟁을 수년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치적인 규약을 만들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작은 걸음을 걸어왔고,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성폭력 경험의 피해와 고통은 아직도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사람을 위주로 얘기되지 못하며, 생존자의 경험과 진술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로 성폭력의 경험은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3년,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모색기에 들어서면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반성폭력 문화제는 단지 하나의 '문화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고닦아온 반성폭력 운동의 터를 굳건히 딛고 서서,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을 다시금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 속에서 사건으로 나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식 전환, 성폭력 경험의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여 더욱 능동적인 생존자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방향을 모색해갈 것입니다.

5월 30일 반성폭력 문화제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2. 일시

5월 30일 연세대학교 (확정)

장소 및 시간은 구체적 협의 중

3. 명칭

"넘다"

4. 기획 흐름

-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 ▶2부 :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5. 구체적 기획판

(섭외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글자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각 공연마다 공연의 제목과 준비 단위를 파워포인트로 표시)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노래 한 구절과 시 낭송으로 열어내는 서막
- 어둠 속에 의자 위에 걸터앉아있는 두 여성에게 희미한 빛을 비추이면서 시의 내용을 이어감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 영상 (그 동안의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 파워포인트
- 학칙 조항 일부를 외치는 멘트로 시작하여 학칙 제정투쟁을 했던 대학 학우들의 울동으로 이어지는 것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짧은 발언
- 여학우 택견 : 터를 닦은 여학우들의 부드러운면서도 힘찬 투쟁의 모습을 형상화

▶2부 :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 학우들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과여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 관객석 즉석 인터뷰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소리공연 (국악과)
- 극 & 발언 : 교수 성폭력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 오카리나 연주
-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살을 풀어내는 공연

▶3부 :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학우들 동영상 (희망적인 인터뷰 내용을 따서)
- 시낭독 : 자작시
- 투명 대형 풍선 & 집단 퍼포먼스 : '내 주위의 풍경'을 상징하는 투명 대형 풍선에 들어가있던 한 사람(혹은 여러사람)이 대형 풍선을 뚫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희망찬 몸짓(정해진 울동이 아닌 그야말로 몸짓)을 하며 무대를 뛰어다니는 퍼포먼스
- 과여부장들의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 신나는 소리공연 : 팬플룻 (& 핸드벨 혹은 실로폰)
-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춤 공연
: 관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오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댄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 <희망은 있다> 전체 몸짓
- 기수 공연(?)
- 반성폭력 선언 운동 모아내는 판

▶부대행사

- 페이스페인팅 (용인대)
- 기념품 모음 판매
- 버튼 판매

▶기획거리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 나의 성폭력 지수는? (예 아니오 화살표)

내가 할 일

사회자 : 외대, *준*

※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지... 어둡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행사> - 섭외 및 내용 마련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노래 한 구절과 (시) 낭송으로 열어내는 서막
- 두 여성의 대화 (3분) *낭송한다!*

(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대사 마련)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

(그러나 나의 성, 우리의 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건...

어둡 대신 사회자가 걸어나오면서 혹은 의자에 앉아서 각각 독백/대화하다가 사회자로 변신하는 것은 어떻게?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티를 닦았구나

- 영상 (그 동안의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을 담은 영상) *반성폭력 7년 발표*
- 반성폭력 학칙 제정투쟁을 했던 대학 학우들의 울음 & 발언
- 유비세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반성폭력 운동의 티를 닦아왔다는 내용으로...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것을 한다는게 좀 짝짝하긴 하지만...
-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보는 발언
- 택견 : 티를 닦은 여학우들의 부드러운면서도 힘찬 투쟁의 모습을 형상화

▶2부 :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 인터뷰 영상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 *사건이 아닌 일상의 폭력에 대하여*
- 관객석 즉석 인터뷰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가야금&해금 합주
- 극 & 발언 : 교수 성폭력 (교원대) =
- 교수 성폭력 퍼포먼스 (경복대)
- 발언 : 교수 성폭력 (서울대)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 교방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살을 풀어내는 공연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새로운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 밝고 신나는 노래)

- 인터뷰 영상
- 시낭독
- 투명 대형 풍선 & 집단 퍼포먼스 : '내 주위의 풍경'을 상징하는 투명 대형 풍선에 들어가있던 한 사람(혹은 여러사람)이 대형 풍선을 뚫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희망찬 몸짓(정해진 율동이 아닌 그야말로 몸짓)을 하며 무대를 뛰어다니는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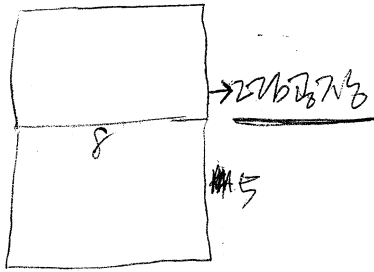
아무래도 풍선 퍼포먼스는 힘들 것 같다.

풍선 터트리기?

40여명

무대장

*책상
신발.*



신발, 반성폭력기대공연



*[기생살라진
중학생사수관으로중학생
누가?*

유리창 찢고 나오기 : 아스테지와 흰 그물천으로 유리창 효과. 유리창 위의 출연자들은 제각각 고립, 단절되어 있다. 유리벽 뒤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유리벽을 부여잡고 입을 벌기도 해보고 유리벽을 치기도 하다가,(여기까지의 형상화는 짧게) 어떤 계기로 유리벽을 찢고 나온다. (이 형상화를 중심으로) 유리벽을 찢고 나올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유리벽을 찢고 서로 만난 출연자들은 서로의 교감을 몸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발을 내딛은 출연자들은 천천히 시작했다가 빠르게 바뀌면서 무대위를 뛰고 날아다니고 춤을 춘다. 정리는 어떻게 하지...?

내용이 바뀔 때마다 흐르는 음악과 효과음

혹은 '일상의 성폭력, 챗바퀴를 전복하라'는 제목으로 : 챗바퀴 도는 것을 형상화해서 챗바퀴 돌 듯 계속되는 일상적 성폭력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 챗바퀴를 오히려 굴리면서 전복을 꾀하는 것은 어떨까... 일상의 성폭력으로 얼룩져있는 챗바퀴를 돌던 몇 명의 출연자들이 약간의 서로에게 다가가다 결국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의 교감이 이뤄진다. 그리고나선 위와 비슷하게 하다가, 챗바퀴를 오히려 굴리면서 춤을 추는 것이다. 끝에는 챗바퀴를 부술수도 있겠다.

즐겁게 춤추며, 개인기를 보여주는 춤(?)

- 극 공연
-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전국 대학의 새내기, 총여학생회장들의 선언 & 춤 공연
- <희망은 있다> *<지리학과 운동회>*
- 반성폭력 선언 운동 조형물 만들기 : 희망은 있다 다같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조형물을 만들어도 좋을 듯.

▶부대행사

- 페이스페인팅
- 각 대학 총여학생회 기념품 모음 판매
- 반성폭력 버튼 판매

*반성폭력기대공연
" 챗바퀴를
기대하며 '나쁜'
제작중*

▶기획거리

- 반성폭력 조형물 : 능동적 생존자를 형상화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조형물 2~3개
- 반성폭력 만평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적 의사소통,
- 반성폭력 상황당 만들기 (연세대 내에 있는 잘 보이는 나무 하나에 색색의 긴 리본을 묶고, 기획거리 전체를 새겨줄 밑에 배치함으로써 상황당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나무 옆에는 돌 대신에 돌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에 반성폭력 선언운동 참여자 명단을 적어서 쌓아두는 것이 어떨까...)
- 교원대 / 서울대 교수 성폭력 관련 대자보, 서명 가판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 나의 성폭력 지수는? (예 아니오 화살표)
- 전쟁과 여성 사진전 (위안부, 아프간 등) - 판넬 전시

▶홍보 플레시 제작 (5월 23일까지) X

▶파워포인트 내용 마련 / 파워포인트 섭외 (외대)

▶문화제 웹페이지

▶스텝 모집에 대한 계획 / 홍보

2k 3k 300
[7월]

*챗바퀴
무대장
동행
영광
전행*

- 새우튀김 만들기
- 페이스페인팅 (용인대)
- 기념품 모음 판매 : 신청 받기.
- 버튼 판매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료,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기념품

신청서, 임대료,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기회거리 : 7월 20일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 나의 성폭력 지수는? (에 아니오 화살표)

- 홍보 플래시 제작 (5월 20일까지)
- 동영상

신청서 받기.

- 내용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성폭력 반대, 성폭력 근절의 의지 표현
- 성폭력을 근절해나가기 위해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신청서 받기

판 준비 완료

<반성폭력 선언운동> 진행 및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제> 홍보 본격화
 대학별 공연 준비
 대학별 조직화 진행
 ~5.25
 대학별 공연 준비
 전체 문화제 판 준비 완료
 대학별 조직화 진행
 ~5.30
 최종 마무리 준비

영양실용 요리 - 내가
 Tupperware - 내가
 10명 정도 있어야 할까?
 신청서 받기

6. 각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것

- 반성폭력 선언운동
- 대학 대중사업
- 조직화
- 각 대학별로 분담된 기획판 / 부대행사 / 기회거리 / 홍보 등

대학별 신청서 받기
 [준비하기]
 "자살단 꾸리기" 서울지역 캠퍼스에서 자살단
 103025-02-096061
 우체국 지정 우편함

7. 구체적 준비흐름

- ~5.12
문화제 명칭 확정
기획안 확정
버튼 배포
각 대학별 <반성폭력 선언운동> 시작

평가서 발송하기 - 끝내고 싶은 것.

사실 및 동등한 자치. <평등>
 성폭력 근절 - 스톤 투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차가 무전기 차가
~~자기~~ 차가

선배들 자치
 선배들 자치
 < Tupperware 자치 > 선언하기
 우편으로 자치하기.

- ~5.15
포스터 만들기 (5.13)
웹 포스터 배포
삽의 완료
보도자료 배포 (여성신문, 이프, 일다)
<반성폭력 선언운동> 진행

영양실용 요리

- ~5.20
포스터 각 지역으로 배포, 부착 시작
보도자료 배포 (각 신문사, 여성신문, 이프)
홍보 플래시 제작
각종 홍보

영양실용 요리

기획서 받기?
 Tupperware 자치 5/18 연
 74수



반성폭력 문화제 준비계획 - 3탄!

1.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폭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 술자리, 모교지, 강의실, 교정... 그 어느 곳에서도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는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그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을 둘러싼 수많은 왜곡된 시선과 온몸으로 싸워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소외되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서기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투쟁, 개정투쟁을 수년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치적인 규약을 만들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 위한 작은 걸음을 걸어왔고,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성폭력 경험의 피해와 고통은 아직도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사람을 위주로 얘기되지 못하며, 생존자의 경험과 진술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억고소로 성폭력의 경험은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3년,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모색기에 들어서면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반성폭력 문화제는 단지 하나의 '문화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고닦아온 반성폭력 운동의 터를 굳건히 딛고 서서,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을 다시금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 속에서 사건으로 나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식 전환, 성폭력 경험의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여 더욱 능동적인 생존자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방향을 모색해갈 것입니다.

5월 30일 반성폭력 문화제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2. 일시

5월 30일 연세대학교 (학생)

장소 및 시간은 구체적 협의 중

3. 명칭

4. 기획 흐름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2부 :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3부 :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노래 & 몸짓

5. 구체적 기획판

(십의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글자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각 공연마다 공연의 제목과 준비 단위를 파워포인트로 표시)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자 - (노래)한 구절과 시 낭송으로 열어내는 서막

자 - 여동 속에서 의자 위에 걸터앉아있는 두 여성에게 희미한 빛을 비추이면서 시의 내용을 이어감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자 - 영상 (그 동안의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 파워포인트

자 - 학칙 조항 일부뿐 외치는 멘트로 시작하여 학칙 제정투쟁을 했던 대학 학우들의 울음으로 이어지는 것

자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짧은 발언 '나랑?'

자 - 여학우 태권 : 터를 닦은 여학우들의 부드러운면서도 힘찬 투쟁의 모습을 형상화

▶2부 :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자 - 학우들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자 - 관여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자 - 관객석 즉석 인터뷰

자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소리공연 (국악과)

자 - 극 & 발언 : 교수 성폭력 (노랑리, 2)

자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 오키나와 연주

자 -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삶을 풀어내는 공연

▶3부 :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자 - 학우들 동영상 (희망적인 인터뷰 내용을 따서)

자 - 시낭독 : 자진시

자 - 투명 대형 풍선 & 집단 퍼포먼스 : '내 주위의 풍경'을 상징하는 투명 대형 풍선에 들어가있던 한 사람(혹은 여러사람)이 대형

풍선을 뚫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희망찬 몸짓(정해진 울동이 아닌 그야말로 몸짓)을 하며 무대를 뛰어다니는 퍼포먼스

자 - 관여부장들의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연극) 희망사항

자 - 신나는 소리공연 : 댄스 & 핸드벨 혹은 실로폰

자 -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춤 공연

: 관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오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맨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새내기 연습

자 - <희망은 있다> 전체 몸짓

자 - 가수 공연(가)

자 - 반성폭력 선언 운동 모아내는 판

▶부대행사

7월 넷에 진행할 수 있겠어. - 연세(경매)만 비워

희망은 있다
[가사 & 노래]

'희망은 있다' 동영상을 지기.
경매!

경매?
'우리는 지금'

희망사항?
경매?
희망사항?

연세(경매)만 비워?
희망사항?

선언운동.
희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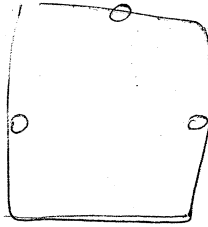
反성폭력 문화제

장소 :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 야외무대

사회자 : 외대 왕산 총어 회장님, 조선대 총어 부회장님

<본행사>

응답방어구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노래와 시로 열어내는 서막 *왕산님*
- 두 여성의 대화 (사회자)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 영상 (그 동안의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발언 (부산대, 경희대)
- 울동 (경희대)

▶2부 :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 학우들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괴어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창원대)
- 관객석 즉석 인터뷰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소리공연 (용인대) - 불투명
- 발언 : 교수 성폭력 (교원대)
- 퍼포먼스 : 교수 성폭력 (경북대)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 *강남양대*
- 서원대 총어 부회장님의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살을 풀어내는 공연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학우들 동영상 (희망적인 인터뷰 내용을 따서)
- 시낭독 : 자작시 (동아대)
- 퍼포먼스 : 유리창 찢고 나오기(?) (외대)
-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영남대)
-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춤 공연 - 10개 대학 정도의 회장님과 새내기
- : 관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오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 희망은 있다 전체 울동과, 반성폭력 선언 운동 모아내는 판 (고민 같이)

다! 2021!

▶기획거리

- 기획거리 계획 참고

▶부대행사

- 페이스페인팅 *5410*
- 각 대학 총어학생회 기념품 모음 판매 : *2020*
- 반성폭력 선언운동 & 버튼 판매

反성폭력 문화제 기획거리 계획

1. 반성폭력 조형물 : 능동적 생존자

- 여성을 둘러싼 성폭력의 억압으로부터 능동적 생존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
- ▶사슬에 묶여있는 응크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 사슬 주변에는 성폭력적인 발언들이 색지에 붙어져 한마디씩 붙어있다.
- ▶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들고 눈을 정면으로 바라본 여성의 모습 & 여성의 주변에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의 문구가 한마디씩 붙어있다.
- ▶사슬이 이미 풀어진 후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선 여성의 팔을 활짝 벌린(혹은 주먹을 꼭 쥐) 모습 & 반성폭력의 한마디
- 필요용품 : 스티로폼, 색지

2. 반성폭력 만평 : 한컷짜리 만화 & 색지 1~2장으로 글상자를 만들어 해설

- ▶여장미인대회 풍자
- ▶가해자 억고소(명예훼손); 오리발 내밀기
- ▶교수 성폭력 풍자 - '이건 내에 대한 음모야?'
- ▶교수 성폭력 풍자 -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던건데?'
- ▶교수 성폭력 풍자 - '학생, 장래가 두렵지 않나'
- ▶'심각한 성폭력' vs '경미한 성폭력'? ; 성폭력을 경중으로 나누는 것은 단지 물리적 기준을 갖다댄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림은 작게 그려져있는 두 사람이 '심각한 성폭력' '경미한 성폭력' 운운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피해자는 "그럼 내 경험과 고통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 ▶'성폭력을 하다니... 그거 미친 놈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상적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비판
- (그림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성폭력을 하다니... 그거 미친 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그린다. 여자는 '네 자신부터 알아라'는 식으로 생각 혹은 얘기)
- ▶서울대 상담소 책자 25쪽의 만화
- ▶'성폭력은 사소한 실수나 장난일 뿐이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는 인식에 대한 비판
- (그림은 여성과 성적 자율권을 짓밟고 있으면서 '실수야' '장난인거 알지?' 혹은 '뭐 그정도 가지고 그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
- ▷모든 해설은 워드로 뽑는다.

3. 반성폭력 성황당 만들기 :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성황당처럼 성폭력을 반대하고 모든 성폭력적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드는 성황당의 의미

- ▶연세대 내에 있는 잘 보이는 나무 하나에 색색의 긴 리본을 묶는다.
- ▶나무 옆에는 돌 대신에 돌 비스무리하게 종이로 만들고 락카를 뿌린 다음에, 반성폭력 선언운동 참여자 명단을 적어서 쌓아둔다.
- ▶성황당 옆에는 반성폭력 성황당의 의의에 대해 적은 가판을 세워둔다. (이왕이면 문화제 해설하는 판때기처럼 만들면 좋겠다)
- ▶기획거리 전체를 새끼줄 밑에 배치함으로써 성황당의 분위기를 만든다.

4. 교수 성폭력 관련 대자보

교원대에서 자보 초안이 오면 만든다.

5.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6. 나의 성폭력 지수는? (예 아니오 화살표)

7. 전쟁과 여성 사진전 : *2020*

문화제 실무 준비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고
	25	26	27	28	29	30	31	
섭외			-사회자 섭외 완료					
기획(본행사)			-무대 걸개 계획 -파워포인트 관련	-콘티 완료 -각종 음악 선곡	-무대 걸개 완성 -본행사 각종 소품 마련 완료 -사회자 : 콘티 보내고 연습 -나머지 영상 찍기 -영상 수거 완료 및 편집 -각종 음악 선곡 및 CD굽기 -리허설 시간 / 무대 설치 등에 대해 알아보기		-리허설	
부대행사			-기념품 관련 홈페이지, 메일링					
기획거리			-기획거리 내용 마련	-기획거리 제작	-기획거리 제작 완료 및 전시			
선언운동			-선언운동 관련 홈페이지, 메일링					
홍보			-웹자보 완료 및 배포 -플랑천 주문 -홍보 걸개 및 플랑 제작 -팜플렛 완성 및 맡기기	-홍보 걸개 및 플랑 제작 및 부착	-언론사 보도자료 재발송		-행사 후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연대 및 초청								
각종 실무			-준비단 집결(저녁9시)		-무대 및 행사장 소품 마련			
기타								
출범식				-홍보 걸개 제작 -웹자보 제작				

※

반성폭력 문화제 콘티 - 대본

▶사전마당 : <희망은 있다> 노래 및 율동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목소리 :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겠으니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노래와 시로 열어내는 서막 (감신대)

반주가 시작되면 무대로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가 끝나면 인사.

인사 후 바로 음악이 낮게 흐르면서 시 낭독. 음악 선곡 <Adagio - Secret Garden>

감신대가 내려가고 나면 다시 음악이 낮게 흐른다. 음악 선곡 <Caribbean Blue - Enya>

- 두 여성의 대화 (사회자)

음악 계속 튼다

관객석 끝에서부터 일어나오는 사회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천천히 일어나오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대사> - 연극대사하듯이

사회자1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사회자2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사1 : 아픈 이야기야. 내 경험이지만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아픈 기억이거든. 나의 입으로 성폭력을 얘기하지만, 때로 사람들에게는 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그런 사건'으로 불리지곤 해. 그럴 때면 나의 존재 위로 '성폭력'이라는 이름만이 덮여져버려. 나는 온데간데없이 말야. 사람은 없고 사건만 있어. 그렇게 드러내다가 생채기를 입기도 하지.

사2 : 일상에 대한 이야기야. 성폭력은 내 일상에 덕지덕지 붙어있어. 내가 숨쉴 때마다,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나의 숨을 막히게 해. 등하교길을 지켜선 낯선시선들... 지하철을 오가며 나의 몸을 낯선이들의 손에 맡기기도 하지. 때론 끈적한 입김에 놀래기도 하고...

사회1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지. 숨기고싶은 것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지. 생존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영웅담이 되는거야. 서로를 느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지. 나만이 가진 특별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쉽게 나는 네가되고 너는 내가 되는 거지.

사회2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나를 복구하는 이야기야. 나의 용기로 나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거야. 새살은 돌아 더욱 단단해지지. 그것이 누군가에게겐 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겐 멋진 전장에서 생존했다는 훈장이 되는거야. 나는 자랑스럽게 훈장을 가슴에 달고 마침내 생존자로서 성폭력을 뛰어 넘는거야.

음악 점점 줄어든다.

<관객에게 얘기하는 자세로 !

사1 : 성폭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목소리가 되고, 우리의 외침이 깨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2 : 전국의 대학 교정 곳곳에서 우리가 지켜온 성폭력 반대의 땅을 굳게 딛고 선 이 자리!

일상의 성폭력을 얘기하고, 우리의 희망을 그리는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에 오신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사1, 사2 각각 : 너무너무(온갖 과장법 동원) 환영합니다!!!

사1 :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면서(환영하는 말은 약간 과장하여 얘기하셔도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1부터 : 오늘의 사회자 서로서로 소개시켜주기!

사1 : 이제까지 <서막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을 짧게 보셨는데요,

자신에게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생각해보셨나요? (대답 유도하면서 대답 안하면 '에이 생각을 안 해보셨네. 다시 관객석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등등의 농담하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기 & 문화제 내내 전폭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을 당부)

사2 : 자,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닦아온 반성폭력의 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전에 미리 나눠드린 초록색 종이 다 받으셨나요? 거기에 성폭력을 반대하는 자신의 의지를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영상을 보게될 건데요, 날이 어찌나 밝은지 영상이 흐릿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영상막이 찢어져라 열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부! 영상 큐~

▶1부 : 그대를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 영상 (그 동안의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음악 먼저 흐르고, 영상 바로 틀어주기. 음악 선곡 < 트랙 6 Meditation - 유키 구라모토 >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발언 (부산대, 경희대)

사회자 소개 없이 부산대 바로 올라와서 발언

부산대 끝나면 경희대 바로 올라와서 발언

- 울등 (경희대)

발언 끝나면 바로 음악 <트랙 8 우리는 청춘>

울등 끝나면 사회자 바로 등장

사1 : 우리가 닦아온 반성폭력의 터! 때로는 눈물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사2 : 맞아요. 바로 저기(반성폭력 성황당을 가리키며)를 보면 마치 머리를 풀어헤친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같이 서있는 반성폭력 성황당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관객들 '네')

사1 :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 학우들이 반성폭력 선언을 했습니다. 성황당 아래 쌓여있는 돌 비슷한 것에 보면 이름들이 적혀 있는 돌이 있죠. 그리고 성황당 나무에도 선언용지들이 달려있구요. 우리가 만들어온 성폭력 반대의 외침은, 저기 서있는 성황당처럼 성폭력적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수호해가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사2 :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동안 해왔던 더 많은 반성폭력 운동이 머리속에서 훅훅 지나가는군요.

우리가 만들어왔던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 그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기엔 1부가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빨리 그려보고 싶지 않나요?

사1 : 네!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적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그 무수한 성폭력들로부터의 상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폭력과 상처를 서서히 벗어내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2 :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경험을 온전히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봅시다.

퇴장. 1부 플랑 떼기

▶2부 :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 학우들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과여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창원대)

간이 음악 <트랙 13 Have a Nice Day - Stereophonics>

준비가 끝나면 음악 소리 줄어들고 조명.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무대 등장

이 때 극이 마치면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사회자들은 서서히 관객석 사이로 들어가있다.

- 관객석 즉석 인터뷰

음악 작게 깔리기. 음악 선곡 <트랙 7 ; May Be - 이루마>

사2 : 자~ 관객과 함께 호호하는 사회자! 관객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공연을 해주신 창원대 여학우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회자도 찾음.

사1 : 대답하면서. 방금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극을 보셨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성폭력 경험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꼬~옥 하고 싶다는 분들, 얼른얼른 손들어주세요~

인터뷰 내용

“자신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사1-사2-사1 순서대로 대답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찍어서 질문

질문 끝나면 질문에 대한 정리 발언을 약간 해줌.

이 사이에 무대 한쪽에 다음 발언자 올라갈 것임.

그럼 이번에는 그런 성폭력에 대한 경험과 투쟁을 얘기해주실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계시는군요. 다같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 발언 : 교수 성폭력 (교원대)

- 발언 : 교수 성폭력 (경북대)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올라감.

사2 : 혼자 무대 위 앞쪽에 나와서 발언.

최근 몇 년간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여러 대학 곳곳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내에서 교수에 의한 권력적 성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적 자율권과 심지어는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드러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의실에서 교수연구실에서 교정에서는 무수한 성폭력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배어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대와 경북대처럼 이렇게 싸우는 우리가 있기에 일상적 성폭력이 깨어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다른 성폭력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력 경험의 한과 살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한양대와 서원대에서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죠~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사회자 발언 동안 무대 세팅

중간중간 막 사이에 음악 선곡 <흰색트랙 7 ; sk&er boy - Avril Lavigne>

- 서원대 총여 부회장님의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살을 풀어내는 공연

사회자 발언 없이 등장 및 공연

공연 끝나고 나면 사1 등장.

사1 : 성폭력으로 점철되어있는 이 사회의 살을 풀어내는 살풀이, 잘 보셨나요?

서원대 총여학생회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폭력의 경험을 얘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의 성폭력을 깨트리는 우리의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의 벽을 넘고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 3부를 더욱더 뜨거운 박수와 찢어질듯한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학우들 동영상 (희망적인 인터뷰 내용을 따서)

영상 틀기

- 시낭독 : 자작시 (동아대)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무대 등장.

인사하고, '시를 낭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면 음악 조금씩 커지면서 잠깐 흐르다가 다시 줄어들면 시낭독 시작.

음악 < 트랙 4 ; May it be - Enya>

사2 :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을 찾아가는 시와 퍼포먼스... 그 속에서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들어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의 퍼포먼스 공연,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 퍼포먼스 : 유리창 찢고 나오기 (외대) (10분)

시가 끝나면 바로 무대 세팅 (비닐막 갖다놓기) / 무대 세팅 시작하면 음악 선곡

무대 세팅 끝나고 출연자들 제 자리에 서면 음악 <매트릭스 리로디드 OST - 트랙 1 ; Main Title>

바로 다음 음악 <매트릭스 리로디드 OST - 트랙 4 ; Chateau> 2분 3초경 중지

바로 다음 음악 <엔야 - book of days>

-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영남대)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무대에 올라가기

극 공연

- 우리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리라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춤 공연 - 10개 대학 정도의 회장님과 새내기

: 관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오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음악

<흰색 8번 트랙 - 크렌시아 광고 음악>

<흰색 9번 트랙 - 첨바왁바>

사2 : 우리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리라(외치듯이)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다들 노력하실 수 있죠? (강조하며 힘찬 대답 유도) 자 그럼 다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얘기해볼까요?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연습은 필요없겠죠? 하나 둘셋!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사1 : 자, 그럼 이런 큰 외침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신나는 기분 그대로 몸을 들썩이며 반성폭력 나무를 만들 겁니다. 행사 도중에 간간이 적은 초록색, 연두색 색지가 나뭇잎이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적은 나뭇잎을 앙상한 나뭇가지에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붙인 나뭇잎으로 앙상한 가지는 풍성하고 푸르른 반성폭력 나무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모두 나와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어주세요~

- 희망은 있다 전체 율동과, 반성폭력 나무 만들기

<트랙 2 ; 희망은 있다> <새물> <트랙 1 ; 믿음의 언덕> <트랙 10 ; 힘 모아힘을줘> 등을 틀면서 열심히 나뭇잎 붙이기

사2 : 이제 반성폭력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 줍시다~ 그럴수 있죠?

사1 : 맞습니다. 우리가 물도 되고 질소도 되서 우리의 반성폭력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땅에 희망의 꽃씨를 날려봅시다.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줍시다.

Ending 음악 - <트랙 9 ; 느껴봐-체리필터>

[키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키디] 진달래 님이 누구십니까?

[진달래] 안녕하세요...

[키디] 낯신지?

[진달래] 광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선전부장이여...

[키디] 오 안녕하세요!

[진달래] ^^

[키디] 고민 좀 많이 해봤어요

[키디] 기확안은 읽어보았나요?

[진달래] 사실은 대충...

[키디] 요즘 학교에서는 뭐해요?

[진달래] 늘 똑같이 지내요.

[진달래] 오늘은 구성에서 성장연회했어...

[키디] 오오

영남대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19:59:19]

[키디] 총여학생회 간부들 다 잘 지내요?

[진달래] 한참 출범식이다 농활이다 바빴는데 갑자기 생긴 여유로...

[영남대] 안녕하세요..^^

[키디] 영남대 부회장님이 들어오셨군요

[진달래] 안녕하세요..^^

[키디] 부회장님 자기 소개좀

[영남대] 아. 저는 영남대 총여학생회 부회장이구요

[영남대] 김정상회입니다

[진달래] 반갑습니다..^^

[영남대] 제가 타자가 좀 느리답니다.

[영남대] 하하^^;

[키디] 글씨 색을 바꿔보았습니다.

[진달래] 난 미리...ㅎㅎ

[영남대] 근데.. 다른 분들도 소개좀

[키디] 다른 분들은 없구요

[키디] 저는 전여대협 간부여요

[진달래] 전 광주대학교 선전일꾼,,, 서은경이라고 해요...^^

[영남대] 아^^ 그렇군요..^^

[진달래] 총여학생회가 빠졌군..흠..^^

[키디] 아직 안 들어오네요 많이들..

[영남대] 그러게요.. 난 늦었는가 했는데..

[키디] 자 고민한 거 좀 나눠볼까요?

[키디] 영대 부회장님은 고민 많이 하셨어요?

주체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0:2:20]

[키디] 주체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대] 그다지 많이 고민은 못했어...

고대서창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0:2:33]

[진달래] 저두요...

[키디] 고대서창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대] 대동제 기간에 노콘돔노섹스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고대서창] 안녕하세요^^ 고대서창 여학생회장 김신녀입니다

[진달래] 안녕하세요...^^

[키디] 네 안녕하세요 그럴 줄 알았지요^^

[영남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요..

[영남대] 안녕하세요..^^

[고대서창] 넵^^

[키디] 우선은 일단 잠담을 좀 하고 있다가 많이 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영남대] 그래요..^^

[진달래] 오늘 구성에서 성장연회를 했는데

[키디] 주체 님은 누군신지 소개를 안 하시네요

[고대서창] 노콘돔... 저희는 콘돔 협찬 받아서 무료제공 행사 하기로 했는데.

[영남대] 저희도 콘돔 협찬을 받긴했는데.. 대동제 기간이라서..

[영남대]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고대서창] 저희는 대동제때 하려구요^^..

[키디] 노콘돔 노섹스에 대한 해설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키디] 영대 부회장님 해설 안 해주시나요?

[영남대] 말 그대로 콘돔없이 섹스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구요.

[영남대] 피임에 관해서 학우들에게 설명을 하구

[고대서창] 아항.. 그렇군요.

[키디] 주체님 근데 누구시죠?

[주체] 저..경희대 지심인데요

[키디] 오오오 그렇군요!!

[주체] 언니가 잠깐 어디 가셨거든요

[키디] 경희대에서 되나요??

해해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0:7:20]

[주체] 저는 회의 참석은 못하구...

[주체] TTT

[영남대] 정말 반가워요..

[주체] 반가워요^^

[영남대] 오랜만이네요..^^

[주체] 네^^

[해해] 드더 되는군요...TTT

[키디] 해해 님 혹시 그 분이신가요?

[해해] 네..

[해해] 주르륵...

[진달래] 그분???

[주체] 해해님 혹시 언니?

[주체] 전 지시미

[해해] 응

[주체] 네..

[키디] 자 그림 저로부터 해해님까지 운명하도록 하도록 하지요!!

[키디] 지금까지는 잠담중이었어요

[키디]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해해님

[주체] 저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지만..회의 같이 못하겠어요TTT

[키디] 왜요 지삼?

[주체] 바쁜 척 해서 죄송해요TTT

[키디] 앙 뭐 때때 바쁠까?

[주체] 대동제 준비요..

[키디] 대동제 준비 하는 거 좀 들려주고 가세요!

[주체] 네

[주체] 저희는 14,15일에 하구요

[주체] 이틀동안 길거리 행사로

[주체] 심리테스트랑 즉석사진 찍기

[주체] 심리테스트는 내 안에 성차별주의를 찾는 내용으로

[주체] 피임기구 전시, 설명이랑 피임상식 길거리 퀴즈

[주체] 호주체 폐지 캠페인

[주체] 투명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주체] 그 안에 부모성함께 쓴 의미를 끼워넣는거예요

[주체] 그리고 15일에 문화제

[주체] 기획안을 전여대협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는데

[주체] 제가 게을러서...-T-

[주체] 지금 바로 올릴게요

[키디] 네 꼭 올려주세요!

[주체] 네^^

[주체] 다들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해요TTT

[영남대] 아니에요^^

[영남대] 준비 잘 하세요..

[주체] 네..감사TT
[주체] 안녕히 계세요
[키디] 네 안녕히 가세요!
[영남대] 안녕히 가세요..^^
주체님이 나가셨습니다. [20:13:46]
[키디] 해해님 어디 가셨습니까?
[해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볼까요?
[해해] 저는 문화제 전체 주체입니다.
[해해] 다들 아시겠져?
[키디] 연락 좀 해보고 올게요 저는
[해해] 네~
[영남대] 네.
[해해] 어디까지 얘기를 했나요?
[해해]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까지 했나요?
[영남대] 아니요..
[해해] 그럼?
[영남대] 그 부분도 거의 얘기가 안됐어요..
[영남대] 쟤부터 다시 해야될걸요??
[해해] 그래요. 오늘 회의 안건은 다들 보셨죠?
[해해]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영남대] 아...니..여
[해해] 안건부터 얘기드리죠
[해해] 1. 반성폭력 운동 흐름을 학내에서 어떻게 짜고 진행하고 있는지?
[해해] 2. 반성폭력 문화제 판에 대해
[해해] 3. 반성폭력 문화제 준비 흐름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하여 문화제에 참여할 것인가?)
[해해] 4.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대해
[해해] 5. 문화제 명칭에 대해
[해해] 6. 재정문제에 대해
[해해] 이것이 오늘의 안건입니다. 좀 많죠?
[영남대] 네..^^
[해해] 그럼 1번부터 시작하죠.
[해해]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진행한 바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요..
[영남대] 영남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은 없구요
[해해] 5월달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영남대] 대중제때 반성폭력 주간으로 잡아서
[영남대] 노کم돔 노썩스 행사를 하려합니다
[영남대] 콤돔없이 썩스를 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피임기구들을 전시하고
[영남대] 피임에 관련하여 이야기도 하구요
[영남대] 잘못된 성통념에 대해 퀴즈를 하고 성관련 비디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남대] 그전에 학우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있을 거구요
[영남대] 이상입니다
[해해] 네~ 다른 분들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주세요
[해해] 없으시면 광주대에서 해보죠~ 오늘 강연은 잘 됐나요?
[고대서창] 콘돔은 제공 하실 계획 이신가요
[영남대] 예
[진달래] 학우들한테 콘돔 나눠주기??
[고대서창] 그렇다면 여학우중심으로? 아니면 남학우도 함께 제공받는건가요?
[영남대]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들을 대상이니까 남녀 모두지요
[해해] '노콘돔 노썩스'의 의미는 좋으나, 제목이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콘돔도 쓰지말고, 썩스도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좀 고치는 것이 좋을듯..
[고대서창] 저도 아까 그렇게 오해했더랬습니다^^;
[진달래] 나똥..
[영남대]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요..
[해해] ^^;
[영남대] 제가 이름을 바꾸기는..^^
[영남대] 제기는 해 볼게요..

[해해] 학우들은 잘 모르니까요.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이... 여성단체랑 함께 하는 건가요?
[해해] 그럼 답 학교~
[해해] 광주대부터!
[진달래] 광주대는 대동제가 이번에는 없을 듯..
[진달래] 연기가 된건지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진달래] 그래서 여성제는 따로 진행을 하든지 아님..
[진달래] 전시회식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달래] 오늘 강연회는 꽤 분위기 탕구요..
[진달래] 따로 준비하는 행사같은 건
[진달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당..
[진달래] 많은 논의가 필요할듯..
[진달래] 죄송해용...TT
[해해] 질문없나요?
[고대서창] 강연 주제는 뭐였나요?^^
[진달래] 따로 주제를 놓지 않구요..
[진달래] 처음에 강연을 들으러 온 학우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진달래] 그래서 그걸 응답해주는 식으로..
[해해] 구성에서 불렀나요?
[진달래] 구성에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진달래] 네..
[고대서창] 그렇게 하면 대략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진달래] 2시간? 좀 남았어요..
[해해] 그럼 더 궁금한건 없져?
[영남대] 예.
[해해] 다음 서창!
[진달래] 물론 시간에 촉박해 하시는 듯 보여서 다 말은 안 해주신듯..
[고대서창] 예 저원는 20일~22일 대동제구요
[고대서창] 저희도 콘돔과 생리대, 텀플르 협찬받아서
[고대서창] 부스설치 하고 무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대서창] 각 계시에
[고대서창] 콘돔과 피임기구에 대한 설명과
[고대서창] 자기몸 사랑하기, 또 생리대 면세 적용에 대한
[고대서창] 이야기를 할거구요
[고대서창] 지금 기획 중인 관계로 더 많은 행사는 준비중이구요
[고대서창] 이상인데요^^;;
[해해] 질문있으시면 해주세요~
[해해] 진달래님, 저에게 말고 전체에게 쓰시지요..
[해해] ^^;
[진달래] 자기 몸 사랑하기관계 구체적으로 뭐죠??
[진달래] 죄송..^^;
[고대서창] 여성의 몸 바로 알기 그런거 있잖아요
[진달래] 아~
[고대서창] 자기 성기를 본적이 없거나
[고대서창] 화장실 용변후
[고대서창] 어떻게 청결해야 하는지 기본적인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고대서창] 많으니까요.
[고대서창] 그리고 콘돔을 나눠주는데 있어서
[고대서창] 자기몸을 사랑하고 지키고 책임을 생각해야하는
[고대서창] 한번쯤 더 자기몸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죠
[해해] 네 그럼 더 질문은 없죠?
[영남대] 저희 학교에서는
[영남대] 대동제 기간에 콘돔나우어 주는게 문제가 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영남대]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떻가요??
[고대서창] 저희는 공약에서 부터
[고대서창] "콘돔은 남자만 준비하나요?"
[고대서창] 이런 내용이 있었구요.

[고대서장] 여성들의 몸을 스스로 지키자는 의미에서
[혜혜] 안전한 성, 당당한 성, 즐거운 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해주면, 그리고 특히 남학우의 경우 여성의 몸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콘돔을 사용하지 않
[혜혜] 는 것에 대해 지적해주면서 나누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혜혜] 즉 잘 해설을 해야한다는거죠.
[진달래] 생리대 나누어 주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혜혜] 특히 보수적인 지방학교에서는 총여가 문란한 성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영남대] 대동계 기간에 사람들이 흐트러 지는데 콘돔을 나누어 주는게]
[영남대] 하라는 의미인것 같다는 고민이 있더라도요..
[진달래] 처음에는 정말 많이 민망했을 하는데 곧 받아가려고도 많이 하시는데..
[고대서장]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여성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영남대] 오늘 그 얘기로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혜혜] 단, 여자가 지 몸 지가 잘 알아서 챙겨야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에게만 나누어주면 마치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거죠

[영남대] 그래서 물어왔어요..
[혜혜] 그래요~ 그럼 대략 대학상황보고는 이쯤 하죠.
[고대서장] 음.. 그렇군요. 많은 준비를 해야겠네요.
[혜혜] 그런데 한가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
[영남대] 저희는 설명을 듣고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려고요
[혜혜] 네. 다들 대학에서 '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혜혜]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선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혜혜] 성폭력에 대해 선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신 대학이 있나요? 있으면 얘기주세요
[혜혜] 없나요?
[영남대] 성폭력 관련하여 모의 팀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영남대] 시간이 넘 빠듯하더라고요..
[영남대] 첨에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갈수록 준비가 어려워져
[영남대] 5월달 안에는 힘이 들듯
[영남대] 다른 것들을 준비해 봐야죠
[혜혜] 다른 대학은요?

[고대서장] 저희는 아직 구체적 행사 계획은 없구요 요번달 안으로 성폭력 상담소와 협의해서
[키디] 들어왔습니다.
[고대서장]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하게 운영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대서장] 지금은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혜혜] 대중적인 행사는 없나요?
[고대서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혜혜] 광주대는요?
[진달래] 없습니당..
[혜혜] 음.. 각 대학에서 문화제 전까지 반성폭력 관련 사업을 좀 해야할 것 같은데요..
[혜혜] 그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혜혜] 그럼 안전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혜혜] 그전에 얘기하실 거 있나요?
[영남대] 아니요
[진달래] 아뇨..
[혜혜] 안전 2번은,
[혜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적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혜혜]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내용으로 펼쳐가야하겠는가
[혜혜] 를 먼저 얘기하고, 반성폭력 문화제 기획안에 대해 얘기하는 순서입니다.
[혜혜] 안전 2번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부터 하죠.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오면서 들었던 고민이 있으면 그 얘기부터 해보죠
[혜혜] 예를 들면, 성폭력에 대해 학우들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든가
[혜혜]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데 나서는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거 말입니다.
[혜혜] 얘기하실 대학 있나요?
[혜혜] 별로 들었던 고민이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혜혜]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회의 진행이 빨리 됩니다. 아시져?
[진달래] 많죠
[진달래] 찾다안되서 광주대옆에서 뽕짜기리는 남여대협입니다
[혜혜] 얘기해주세요~ 진달래님... 구체적으로요

[진달래] 성폭력에 대해 우리는 젊은세대나가 인식은 있는것 같아요.
[진달래] 근데 총여에서 하는 사업과 내용이 학우들속에 전파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진달래] 역량부족도 있고 우리들의 고민이 그리 높지 않은것도 있고
[진달래] 여러가지 이유로
[진달래] 그래서 생각해본건데
[진달래] 새로운 것을 만들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달래]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이 일반학생회의 흐름과
[진달래] 잘 맞춰야한 것 같아요.
[진달래] 예를 들면 전학대회나 확운위 같은 곳에서
[진달래] 전체대표자들의 선언같은 것들을 하면서 대표자들부터 인식을 높이것
[진달래] 적은수의 간부들이 단위로 없이 많은수와 다양한 학우들의 의식
[진달래] 학내흐름을 장악하자고는 하는데
[진달래] 실상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진달래] 학기초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확운위같은 공간에서
[진달래] 성폭력운동을 전체가 벌이자라는 내용이나
[진달래] 우리대학에서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진달래] 대표자들부터 결의하는 성명서같은 것들을
[진달래] 적극조직해서 회의 안전으로 채택하고 결의해서
[진달래] 학내에 부착하고, 학교본부를 강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진달래] 그런것ですよ.
[혜혜] 참고로 얘기하자면, 경북대 총학생회 여성국의 경우에는, 대표자들부터 인식을 높여야한다는 고민으로, 과정들과의 반성폭력 선언 비스무리한 것과,
[혜혜] 과학생회와의 학칙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혜혜] 다른 분들의 고민은 없나요?
[진달래] 사업을하다보니 여학생회의 사업들이 전체학생회와는(우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무관하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진달래] 그러다보니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가 크게 남거나
[진달래] 하기보다는 몇몇 우리간부들이 참 힘들게 준비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아서요.
[혜혜] 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구요. 반성폭력운동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 안에서 총여학생회는
[혜혜] 성폭력의 정의고 뭐고 자보를 붙이는데, 성폭 학우들의 인식은 크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달래]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혜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 안에서 학우들 속에서 성폭력을 더 많이 인식하고 바뀌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혜혜] 근데 단적으로 보면
[혜혜] 학우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혜혜] 총여로 성폭력이 신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혜혜] 또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도도 낮구요.
[혜혜] 광주대의 경우에도 교수 성폭력을 교수 성폭력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게 있으니까요
[혜혜] 그렇지 않나요?
[진달래] 맞아요
[영남대] 그건 학우들이 계속 그러한 문구들을 접해서 저것이 성폭력이구나 각인 되었을 뿐이지 이해했다고는 생각이 안되요
[진달래] 그리고 일단 우리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혜혜] 영대 부회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달래] 그래요 그런것 같네요.
[혜혜] 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혜혜] 지랑 키디가 고민해보기로는,
[영남대]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고민을 해요
[혜혜]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더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야하지 않을까
[혜혜] 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달래님이 나가셨습니다. [20:55:47]
[혜혜] 아앗! 왜 나갔지?
[키디] 혁 깜짝이야 왜 나갔을까요!!
[영남대] 첨에 문제가 생겼나??
[혜혜] 잘못해서 그랬죠. 아마 다시 들어올 거예요. 참, 참고로 오늘 대화방이 이상해서 못들어오는 대학이 한 5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혜혜] 그럼 계속 논의를 진행해보죠.
[혜혜] 참, 서장님, 계시는거 맞겨?

[혜혜] ^^
 [고대서창] 넵
 [영남대] 운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남대] 이것은 성폭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된다라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키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설명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혜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영남대] 성폭력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직접적인 것을 잘 얘기하고 풀어야 할 문제인지 같다는 거요
 [혜혜] 더 자세히...-;
 [영남대] 새터를 간다든지 하면 자치규약을 내 놓잖아요
 [영남대] 근데 성폭력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고
 [영남대] 그러니까 혼수를 금지해라
 [영남대] 명령어 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영남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교양이라고 해야 하나 ?
 [영남대] 그런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혜혜] 음... 그렇죠 동감합니다.
 [혜혜] 제 생각에는요..
 [혜혜] 참, 부회장님 다 얘기하신 거 맞나요?
 [영남대] 예..
 [영남대] ^^
 [키디] 광주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개설된 방이 없다고 나온다는군요
 [혜혜] 잠깐.. 그럼 다들 다음 대화방으로 옮길까요?
 [키디] 대화방을 모두 나갔다가 다시 만들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영남대] 예.. 그래요..
 [키디] 그럼 모두 일단 나가주세요!
 영남대 님이 나가셨습니다. [21:22:11]
 고대서창 님이 나가셨습니다. [21:23:34]

<2차 대화 시작>

[분이] 안녕하세요!!
 [혜혜] 아직 다들 안들어왔나..
 [혜혜] 서창여회장님이 아직 안들어왔군요.
 [분이] 그렇네요!
 [분이] 또 안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혜혜] 서창여회장님에게 전화해보주세요. 011-9183-4407
 [혜혜] 남여대협남이..
 [iny&gi] 광주대랑 남여대협,,
 [영남대] 근데요.. 제가 차 시간 때문에 10시에 나가봐야될것 같은데..^^
 [영남대] 우쨌죠.
 [혜혜] 다음 회의 전까지는 새로운 대화방을 깔든지, Daum 대화방에서 하든지 하죠. 죄송함~
 [혜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남대] 감사합니다..
 [혜혜] 시간이 되면 어쩔 수없이 나가셔야죠 뭐
 [영남대] 죄송하기도 하궁..
 [혜혜]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혜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혜혜] 공동체 안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거죠. ?
 [혜혜]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은 알고보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혜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현황과 모습,
 [혜혜] 공동체 내 성폭력의 심각성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와 인식)
 [혜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혜혜] 그리고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 다른 학교들의 해결사례와 교수 성폭력의 특징 및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혜혜] 특히 중요한 것은,

[혜혜] 아까 영대 부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혜혜] 단순하게 문제를 지적한다는데 있죠.
 [혜혜] 학우들은 아직도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뭔지 애매해하는 경우도 있고,
 [혜혜] 성폭력이라는 것이 남성들의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외대 왕산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1:22:42]
 [혜혜] 그러니까 학우들에게 토론과제를 던지듯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게 의식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성폭력의 여러가지에 대해서 말예요.
 [혜혜] 드더 들어오셨군요.
 [외대 왕산] 안녕하세요..^^
 [iny&gi] 오랜만이에요
 [분이] 우와 안녕하세요
 [분이]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외대 왕산] ^^
 [영남대] 안녕하세요..^^
 [혜혜] 네 지금은 반성폭력 운동의 어떤 내용을 학우들과 얘기해야하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대 왕산] 오랜만이에요..
 [혜혜] 조금 있으면 적용이 되시겠져? ^^;
 [외대 왕산] 네..^^
 [혜혜] 다들 저의 얘기를 이해하셨나요?
 [분이] 우리 모두 글자색을 바꿔요!!
 [혜혜] 네
 [iny&gi] 넵
 [외대 왕산] 당채 어케 바꾸는지...-;-;
 [혜혜] 아래 검은 색깔의 네모칸을 누르면 알 수 있져
 [iny&gi] 아래 까만색,,
 [외대 왕산] ^^
 [혜혜] 저의 얘기 아시겠져?
 [iny&gi] 넵...
 [혜혜] 다들?
 [영남대] 네
 [혜혜] 그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얼른 얼른 얘기하죠.
 [혜혜] 혹시 전여대협 홈페이지 속보란에 있는 기획안 보고 오셨나요?
 [iny&gi] 학기초에 우리가 했던 성의식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iny&gi] 아님 모꼬지나 과공동체 야유회등에서
 [iny&gi] 있었던 일들을 조사해서
 [iny&gi] 그걸 기반으로
 [iny&gi] 대안을 제시해보는거예요.
 [iny&gi] 질문도 던지고
 [iny&gi] 이를테면 "남자의 성욕은 참을수 없다"
 [iny&gi] 를 있다, 없다 스티커설문으로 시작해서
 [iny&gi] 있다와 없다는 대한 올바른 견해들을
 [iny&gi] 제시해주는 거죠.
 [iny&gi] 그러면서 참여도 유도하고
 [혜혜] 네~ 다들 대학에서 선전내용을 잡을 때, 성의식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우들의 인식 중 아직도
 [혜혜] 바뀌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iny&gi] 그래서 계속피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계속해보는거죠
 [혜혜] 전여대협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작년에 성의식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혜혜] 다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외대 왕산] 네..^^
 [혜혜] 그럼 구체적으로 문화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시다.
 [iny&gi] 그래요
 [혜혜] 조금전에 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혜혜] 문화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다~
 [혜혜] 반성폭력 문화체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바로 이제까지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혜혜] 이후에는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문화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해] 혹시 다들 문화제 기획안 보고 오셨나요?
 [해해] 반응을 언젠 보여주시지요~ 회의가 길어집니다요~
 [ny&gj] 조금요,,
 [영남대] 저도 조금
 [외대 왕산] 못봤는데.여우 페스티벌 준비가 바빠서..죄송해요.--;
 [해해] ^^;
 [해해] 대략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기 전에 전여대협 홍보 속보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외대 왕산] 사실 지금 무슨 채팅인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길..T.T
 [해해] ~~~;
 [해해] 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군요. 전여대협 홍보 속보란에 가서 보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외대 왕산] 보고 있네요..^^
 [해해] ALT키랑 TAB키를 같이 누르면 전여대협 홍보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해해] 다들 보셨나요?
 [외대 왕산] 네..
 [해해] 다른 분들은요?
 [영남대] 네
 [ny&gj] 네..
 [해해] 서장?
 [고대서장] 냐
 [해해]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요
 [해해] 0부는 프롤로그써 성폭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와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는 판을 짧게 가져가자는겁니.

다.

[해해]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보는 과정을 1부로 하죠.
 [해해] 중요한 것은 3부와 4부입니다.
 [해해] 3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겁니다.
 [해해]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 교정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특히 교수성폭력)..
 [해해] 그렇게 일상적으로 성폭력은 일어나면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둘러싼 일상들은 아무런 변화없이 반성없이 흘러가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해해] 우리가 핵심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서 잡고가야할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는거죠.
 [해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부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핵심적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외대 왕산] 네..
 [해해] 한가지 덧붙일 것은, '능동적 생존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나면
 [해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더욱 능동적으로 성폭력 경험과 고통을 다시금 성폭력 해결의 원동력으로 가지고

[해해] 반성폭력 운동의 주제로 서나가는 기준

[해해] 일단 대략적인 판의 내용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해해]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구요. 구체적으로 각 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ny&gj] 짧은 고민인데요
 [ny&gj] 0부에서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를 극으로 해보고
 [ny&gj] 3부는 교수성폭력연대회의와 함께
 [ny&gj] 해보는게 어떨까
 [ny&gj] 일단 교수성폭력이 본질에 대해서 알리고 투쟁과정, 연대회의를
 [ny&gj] 묶어서 투쟁했던 과정들을
 [ny&gj] 집회처럼 해보는거예요
 [ny&gj] 근데 2부는없네
 [해해] 앗,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3부가 2부구요, 4부가 3부입니다. ^^;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에 대한 극은 2부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해해] 다른 의견들도 다 주세요.
 [영남대] 저두 2부에 극을 올리는게 좋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ny&gj] 된다면 교수성폭력피해자와 함께해보면 그 아픔과 고통을 더욱 절실히 전달되고 그럴수있을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동의한다면요..
 [외대 왕산] 저두요,,
 [ny&gj] 반성폭력문화제는 제목이 아니죠?
 [ny&gj] 제목을 능동적 생존자로 하면 어떨까요?
 [해해] 음... 그렇지 않아도 문화제 명칭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외대 왕산] 다른 학우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해해] 네..

[해해] 문화제 명칭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ny&gj] 교수성폭력에 대한 모의법정같은 형식을 취하는것도 좋을것같고
 [해해] 참고로 얘기하자면,
 [해해] 제1회 반성폭력 문화제는 지속적인 이름이구요, 올해에 맞는 명칭은 새로 고민해야죠
 [영남대] 모의 법정든 제가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해해] 한번 고민해보죠
 [외대 왕산] 모의 법정도 준비를 알차게 하면 괜찮을것 같구
 [외대 왕산] 반성폭력 문화제 '미처보자' 처럼 상쾌한 ^^; 이름을 짓는게 어떨까요..
 [외대 왕산] 어떨까요...--;
 [해해] 약간 산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화제 프로그램과 명칭에 대한 모든 고민을 다 얘기해주세요.
 [해해] 그럼 나온 의견들로 세부적으로는 전여대협 중앙에서 정리를 할꺼니까요
 [본이] 그리고 각자의 대학에서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얘기해주세요!
 [해해] 왕산 의견 좋습니다
 [해해] 미처보자 같은 짝퍽한 이름이 어디 없을까..
 [ny&gj] "뚜껑열리다"어때요?(의미는 성폭력에 뚜껑열린 날)이런 것은 어떡까
 [해해] ^^
 [외대 왕산] 살인의 추억보면 송강호가 이런말도 하잖아요
 [외대 왕산]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나?
 [외대 왕산] --;;
 [ny&gj] 으으
 [해해] 멧" 혼자 생각해보때는 "반성폭력 생존의 땅에 도착하다" 뭐 이런 것도 고민했는뎡...--;
 [외대 왕산] 또 생각해서 내려니 어렵군요
 [ny&gj] 좀 길고 어렵네요.
 [ny&gj] 성폭력법에 뚜껑열린날
 [해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해해] 푸하하~ 쟈있네요~
 [외대 왕산] 다들 좋네요..^^
 [고대서장] ~...
 [해해] 프로그램은 더 고민되는거 없으신가요?
 [ny&gj] 성폭력 때려잡기
 [외대 왕산] 음.....
 [외대 왕산] 생각 중
 [영남대] 음..
 [해해] 성폭력 때려잡기로 해서 두더지잡기를 크게 형상화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해해] 플랑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요
 [해해] 재미있겠져?
 [ny&gj] 마지막은 우리의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선언대회나 결의식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ny&gj] 새내기, 대표자들의
 [해해] 좀 더 문화제답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단, 그런 새내기나 대표자들의 예기는 중간중간에 넣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외대 왕산] ny&gj 는 어느대??^^
 [해해] 남여대협과 광주대 선전부장요. 9시 55분까지 더 생각해보구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ny&gj] 남여대협이랑 광주대예요..
 [외대 왕산] 아.방가 방가^^ 올만이당..^^
 [ny&gj] 성폭력지수 초짜! 때려잡기?
 [영남대] sbs에서 캠퍼스열전인가 그런거 하잖아요..
 [영남대] 그거랑 비슷하게 인원을 해서
 [ny&gj] 성폭력지수 만명! 뚜껑열리다
 [고대서장] 극올리는것 중예요.. 예전에 김원희 신동엽이 했던 남여가 바뀌어서 언어나 행동으로 성폭행올하는 것을 ...
 [고대서장] ...
 [고대서장] --;; 그건 아닌가요..
 [외대 왕산] 그것도 쟈있을꺼 같은데요~
 [외대 왕산] (왕산 간부들 골똘히 생각중)...--;;
 [고대서장] 그런데요.. 이젠 안전하고는.. 다른 질문인데요.. 날씨가 30일 예정이었잖아요..
 [고대서장] 근데 그날 한총련 출범식 아닌가요?
 [ny&gj]反성!반란일으키다
 [외대 왕산] 반성하자.

[외대 왕산] -.-;
[ny&gj] 우와~~~
[영남대] 반성하자 좋다.
[ny&gj] 진짜 괜찮다,,,ㅋㅋ
[ny&gj] 근데,,
[ny&gj] 성을 반대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도...
[외대 왕산] ^^
[ny&gj] -.-;
[외대 왕산] 의미야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겠죠.^^
[ny&gj] ㅋㅋ
[외대 왕산] 저화야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로 그냥 씩~ 내 본것..ㅋㅋ
[ny&gj] 근데 너무 괜찮네요,,,ㅎㅎ
[혜혜] 참, 날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날짜는 30일 오후 6시로 고민됩니다. 30일 오후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고 문화제 마치면 한총련
[혜혜] 출범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됩니다.
[고대서창] 그러면 문화제가 3시간 정도 예정되어있는건가요?
[외대 왕산] 문화제는 어디고 출범식 어던데요.....?-.-;
[혜혜] 대충 그렇겠죠. 그럼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문화제 제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혜혜] 출범식은 서울에 서부지역 쬐미 될거구요.
[영남대] 죄송한데요.
[혜혜] 문화제 장소는 아직 물색중입니다.
[ny&gj] 성폭력 나가있어!이건어때요?
[영남대] 제가 짐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영남대] 하하~~;;
[혜혜] 영대 부회장님 잘 가시구요, 갈무리한거 올려놓을테니까 꼭 보세요~
[영남대] 예..^^
[외대 왕산] 영대 부회장님 올만이에요~~~~~!!
[영남대] 다들 수고하세요..^^
[ny&gj] 안녕히 가세요~~~
[외대 왕산] 님에 또 꼭 만나용
[고대서창] 안녕히 가세요^^
[영남대] 예.. 그러네요,,^^
[ny&gj] 냥~
[외대 왕산] 저 외대 부짱이에용
[영남대] 답에 비요..^^
[영남대] 그럼..^^
[외대 왕산] 꼭 봐요
[외대 왕산] !
[영남대] 네..^^
[혜혜] 다른 분들은 언제까지 시간이 되세요? 마치는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게요.
[ny&gj] 올 참여대협 언니두 10시 15분 쯤 차타야 된대용...
[혜혜] 네. 그럼 담 안건 하겠습니까.
[혜혜] 담 안건은,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대한 겁니다.
[혜혜] 각 대학에서 문화제 전까지 반성폭력 운동을 대학 안에서 잘 벌이는 것이 중요하죠.
[혜혜] 아까 얘기했던 일상속의 성폭력, 공동체 속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
[혜혜]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토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데요...
[혜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
[혜혜] 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에도 나와있구요.
[혜혜]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있고, 자료실에 가보면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선언용지도 나와있습니다.
외대 왕산 님이 나가셨습니다. [22:0:11]
[혜혜] 뜨아!
[분이] 헉
[고대서창] 그런데 왜 오늘 대화에 적은 대학만이 참가하게 된건가요... 많이 참가하면 더 많이 같이 문화제 홍보방 준비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대서창] ...
[ny&gj] ㅋㅋㅋㅋㅋ
[혜혜] 어찌지... 에러나서 나갔나?

[ny&gj] 그런가봐요,,
외대왕산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2:0:56]
[혜혜] 원래는 한 4개 대학쯤 더 대화방에 들어올려고 했는데, 대화방이 좀 이상한가 봐요.
[혜혜] 계속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외대왕산] -.-;
[ny&gj] ㅋㅋㅋ
[혜혜] ^^;
[외대왕산] 네?
[혜혜] 그래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학안에서 오프라인상으로,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지는거죠.
[혜혜] 대동제나 총여 사업과 같이요.
[혜혜] 특히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면서 버튼(뺏지)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혜혜] 버튼 도안을 전여대협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혜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좋으시져?
[외대왕산] 여우 페스티벌이 13일 부터데 뺏지 만드는거 얼마정도 걸리나요??-.-;
[ny&gj] 제복 또하나, 성폭력에 反하다
[혜혜] 아시는분이 암도 없나?
[외대왕산] 아무래도 대동제 보다는 총여 대동제때 나눠주는게 좋을듯..
[혜혜] 그렇져...
[외대왕산] 총학 대동제..
[고대서창] 있.. 그 버튼.. 제가 ... 가져다가 카페 주인백에 그림으로냈는데 .. 안되는건가요?...-.-T
[분이] 2,3일 걸립니다 버튼 만드는데
[혜혜] 괜찮아요.
[외대왕산] 글썽요..
[혜혜] 고민은요... 각 대학별로 만들어 쓰면 빨리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활용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구요
[외대왕산] 머니가 문제군..-.-;
[혜혜] 전여대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만들면, 활용은 많이 되겠지만 좀 늦게 나오게 될꺼라는거죠
[혜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y&gj] 그걸 전여대협에서 만들어서 문화제때랑 한총련 출범식 기념품으로 주는건 어때요
[혜혜] 그렇게는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혜혜] 기념품으로 줄지 팔지는 알 수 없지만요
[ny&gj] 기념품으로 쥐요
[분이] 주는 건 안되어요 돈이 없어서
[ny&gj] 우리가 한번 씹시다!
[혜혜] 문제는 대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꺼냐는거예요
[외대왕산] ^^
[ny&gj] 선언운동에 참여한 학우들에게 나눠주고
[ny&gj] 과회장이나 교수님들을 직접만나서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참여시키고 나눠주고
[혜혜] 전여대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돈을 신청한 대학으로부터 받고 만들어서 배포할까요. 아님 각 대학에서 알아서 만들어 쓰실래요?
[ny&gj] 만들면 언제든지 쓸수있는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ny&gj] 전여대협에서 신청받아서 일괄적으로 만듭시다
[외대왕산] 얼.마요? -.-;
[ny&gj] 대학에서 만들자하면 막상 늦고 그러니까요
[혜혜] 전여대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만들면 대략 12일 정도까지 각 대학으로 배포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지 만...
[외대왕산] 12일 까지 배포되면 좋겠네요.
[외대왕산] ^^
[혜혜]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전여대협에서는 알아서 얼른 만들테니까 각 대학에서 도안에 따른 신청량을 속보란에 올려주는거죠.
[ny&gj] 네
[혜혜] 참고로 버튼 도안은 3가지입니다.
[외대왕산] 냐
[혜혜] 그럼 신청하라는 내용의 글은 다시 속보란과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혜혜] 중요한 것은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학에서 꼭!~ 진행하는겁니다.
[혜혜] 아시겠져?
[혜혜] 배너도 퍼다나르시구요
[혜혜] 답을 좀 주시지요///
[외대왕산] 또 다운인가...-.-;

[외대왕산] 아하.
[ny&gj] 네~
[외대왕산] 넵.
[외대왕산] 여우 페스티벌 할때 놀러들 오세용.
[고대서창] 넵~
[외대왕산] 다들 보고 잠아요~
[해해] 이후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정리해서 총회 때 얘기하죠~
[외대왕산] 13~15 외대 왕산 총여 축제합니다.ㅇ
[ny&gj] 총회때 문화제 기획단회의를 하는건가요?
[외대왕산] 전여대협 서로 너무 교류가 없는듯..
[해해] 전여대협 중앙에서 문서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회 때 10일날 기획단 회의요
[해해] 왕산 부회장님 말이 마자요~
[해해] 그렇게 하죠~
[해해] 그럼 더 의견있으신가요?
[해해] 오늘 회의에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주시구요~
[해해] 없으시면 없다고 답...음... 좀...주시지요..
[분이] 네
[ny&gj] 없습니다
[외대왕산] 음.....
[외대왕산] 네;
[고대서창] 네.
[해해] 그럼 총회 때 더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회의하구요~
[고대서창] 음...
[외대왕산] 다들 힘내용~~~~~!!!!!!
[해해] 더 많은 고민 해주세요
[외대왕산] 다들 너무 힘이 없으시네요~~
[고대서창] 저기요...
[외대왕산] 내가 늦게 들어와서 다들 진이 빠지셔서 그런가
[해해] ^^; 문화제 프로그램이랑 명칭 말예요
[해해] 네
[해해] 얘기하세요
목포대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2:11:43]
[고대서창] 버튼 나눠줄때 게시판 만들고 싶은데요..
[해해]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다니..
[ny&gj] ㅋㅋㅋ
[외대왕산] 하하하
[고대서창] 간략한 내용... 좀만 부탁 드려도 될까요?..
[목포대] 안녕하세요..
[분이] 안녕하세요!!
[해해] 안녕하세요~
[해해] 서창님 얘기하세요
[ny&gj] 안녕하세요~
[고대서창] 얘기 했는데요..
[외대왕산] 안놓하세요~~0
[목포대] 아까는 창이 안떠서 이제 들어왔네요..
[해해] 반성폭력 선언운동 관련 홈페이지 서명운동란이랑, 선언용지에 내용이 있는데 그걸 쓰시면 어떨까요?
[ny&gj] 회장님 한벌 늦었듯
[해해] 서창님?
[고대서창] 넵
[고대서창] 전여대협 홈페이지에 있는거요?
[해해] 네~그럼 오늘 온라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목포대] 오메..다 끝나 부웠네..
[고대서창] 넵..
[해해] 더 많은 고민 가지고 총회 때 만납시다!
[분이] 오메 워지까요??
[ny&gj]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대왕산] 네~ 좋아요~
[ny&gj] 네~
[해해] 목포대는 워전다~
[외대왕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해] 갈무리 잘 보시구요~
[외대왕산] 네~
[해해] 참, 자기 대학 대중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해해] 자보나 이런걸 써오셔서 좋을 것 같은데요
[해해] 초청자보 말예요
[해해] 왕산두...
[외대왕산] 넵~★
[해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꼭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이지
[고대서창] ^^.. 저희도 여우페스티벌 가보고 싶어요~
[외대왕산] 해해해 오세용~~ ^^*
[고대서창] 근데.. 가면 저희끼리가서.. 행사 보면..되는거죠?
[해해] 네~ 그럼 이것으로 문화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회 때 봐요!!!
[해해] 다들 나갈 생각을 안하시는군용..
[외대왕산] 네~ 그럼 그때 봐요~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외대왕산] 하하하 아쉬워서랑~
[해해] 갈무리해서 속보란에 올려놓을테니 다시 읽어보시고 많은 고민하시구요~
[고대서창] 많이 도움 못되서 넘 죄송하네요...T.-
[해해] 아내여
[외대왕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목포대] 학교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다 끝나서 아쉽네요..
[고대서창] 가보겠습니다...
[해해] 네 안녕~
[목포대] 답에 또 봐요..
[외대왕산] 안녕~~

9
10 3차서기행은3차서기
7233333333

전여대협 反성폭력 문화제 <넘다!> 평가 (초안)

I. 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성과

1)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첫 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여러 대학이 함께 문화제를 준비한 성과가 있다.

3) 전여대협과 전여대협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 한계

1) 반성폭력 운동을 평가하고 모색해가고자 했던 내용적 준비가 부족했다.

원래의 기획의도에 부합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후반에는 실무 차원으로 준비된 한계)

2) 전반 준비계획이 빠르게 제출되지 못했고, 전 대학이 하나같이 짜임새있게 준비하지 못했다.

3) 실무 준비 역량에 한계가 있었으며, 집행력이 많이 떨어졌던 한계가 있었다.

3. 과제

1) 반성폭력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기 위한 노력을 전체적으로 진행해가야 한다.

2) 전여대협 차원의 하나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가고, 집행력을 높여야겠다.

II. 문화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1. 문화제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

1) 문화제 기획단 회의에 대한 평가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4차례 걸친 기획단 회의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하였다.

성과

여러 대학에서 진행해온 반성폭력 운동과 계획을 공유하였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여러 단위가 함께 준비해가고자 하는데서 의미가 있었다.

한계

최소 4개 대학, 최대 8개 대학만이 기획단 회의에 참가하여, 많은 대학이 더 다양하고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기획단 회의가 미리 준비가 치밀하게 되지 못해, 각 대학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고, 그동안의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했던 애초의 기획의도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2) 반성폭력 선언운동 / 그 외 5월 동안 각 대학에서 진행한 반성폭력 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대한 평가

성과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언을 한 것으로 추정됨 (홍인대 53명, 서원대 600여명, 목포대 200여명, 동국대, 고대서창,

한계

반성폭력 선언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성폭력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얘기하고 토론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각 대학에서 진행했던 반성폭력 선언운동이 하나의 성과로 남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3) 반성폭력 운동과 문화제에 대한 인식화 및 홍보에 대한 평가

문화제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되었다. (보도자료, 포스터, 웹자보, 온라인 상에서의 홍보 등)

특히 여성단체들

4) 반성폭력 문화제에 대한 각 대학별 조직화에 대한 평가

문화제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지역총련 차원으로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결의한 지역도 있었고, 과여부장들을 조직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화제에 대한 조직화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대학별 조직화 활동이 천차만별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화 활동이 미흡했다.

2. 문화제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

1) 문화제 본 행사에 대한 평가

문화제 본 행사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특히 음향과 조명이 너무 늦게 설치됨으로써 문화제가 2시간이나 늦어진 것이 결정타였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각종 실무 준비가 매우 늦어졌다.

그러다보니 문화제에 필수적인 리허설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문화제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

원래 계획되었던 판이 빠진 경우가 많았다.

섭외가 여러차례 미뤄진 경우도 있었고, 이미 섭외가 완료된 경우에도 집행이 안된 경우, 집행이 빠르게 점검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집행력이 많이 부족하였던 것이 큰 문제였다.

문화제 본 행사는 여러 대학의 힘으로 내용성있게 치뤄졌다.

비록 준비하는데 부족함은 있었지만, 감신대, 경희대, 교원대, 경북대, 한양대, 서원대, 동아대, 외대왕산, 영남대 등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대학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문화제 실무 준비가 늦어졌지만, 문화제에 참가했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여 문화제를 결국 치뤄내었다.

사회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였다.

2명의 사회자에 대한 담보가 미리 되지 못한 채 문화제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문화제 본무대 초반 운영에 미숙함이 드러났다.

2) 문화제 부대행사 및 기획거리에 대한 평가

원래 계획되었던 부대행사 중 각 대학 총여학생회 물품 판매는 다소 늦게 시작되긴 하였으나, 활발히 진행되었다. 각 대학 총여학생회 물품 판매는, 대학 간의 교류의 일환으로 의미가 컸으며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페이스 페인팅이 실무 준비가 안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총여 물품 판매가 늦어짐으로써 문화제를 기다리던 시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획거리 계획을 미리 제출하지 못해, 애초에 여러 대학과 함께 준비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나마 준비단이 준비를 했으나, 기획선전관이 준비되지 못해 반성폭력 상황당과 만평 모음, 성폭력 10대 사건, 성평등 의식 체크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못했다.

기획거리는 계획했던 내용은 좋았지만, 실제로 준비가 되지 못하거나 설치가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는 사업이었다.

전여대협 反성폭력 문화제

넘자!

성폭력의 고통을 딛고
무기력증과 분노, 슬픔의 고개를 넘어간다.

내 일상에 끈적하게 붙어있는
성폭력의 벽을 부순다.

우리를 주눅들게 했던
세상의 시선을 넘는다.

무지개 너머 희망을 꿈꾸며...!!!

서막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1부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영상(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反성폭력의 몸짓 / 터를 닦은 이들의 향연, 택견

2부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영상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일상의 벽 1 - 일상-공동체 속의 성폭력

성폭력, 그 고통의 깊이 - 가야금, 해금 합주 / 퍼포먼스

일상의 벽 2 - 교수 성폭력

한恨과 煞을 풀어내는 교방살풀이

3부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시와 극이 어우러져 만드는 희망

풍선 퍼포먼스

우리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리라

희망은 있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